

## 미국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본 ‘이라크 자유 작전’

양희용\*

- |  |
|--|
| I. 서론<br>II. 전략문화<br>III. 미국의 전략문화<br>IV. 미국의 전략문화와 ‘이라크 자유 작전’<br>V. 결론 |
|--|

주제어: 전략문화, 이라크 자유작전, 신보수주의, 자유주의적 패권, 국가건설
---

### | 국문초록 |

일반적으로 패권국가의 행동은 국제체제, 위협, 국가이익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라크 자유 작전’의 실패는 9/11 이후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전략적 목표의 재설정에는 물론 군사적 수단의 사용 목적과 방법과도 관련된 관념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과 분리하여 설명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미국 전략문화의 관점을 차용하여 문화적 요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전략적 선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적한다. 전략문화의 시각으로 보면, 당시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오랜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일방주의적 군사 개입을 통한 정권교체라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표출된 것은 9/11 이후 정치-학술-군사 네트워크를 장악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집단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패권의 도덕성과 힘에 대한 자기확신은 군사전략에도 영향을 주었다. ‘완벽한 파괴’와 ‘신속한 지배’ 전략은 기존의 와인버거 독트린이 강조한 ‘정치적 목적 추구하고 압도적 무력 동원’의 원칙과 결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략적 목표와 수단의 심각한 괴리를 초래했다. 요컨대 자유주의적 패권과 군사과학주의의 결합은 ‘전쟁과 정치의 분리’는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문화, 즉 반클라우제비츠적인 경향으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접근법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신현실주의가 강조하는 국제체제의 일반적인 영향력과 미국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요인들이 가하는 개별적 영향력을 구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 『국제관계연구』 제24권 제2호 (2019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9.12.24.2.73>

\* 주저자, 육군사관학교 미국지역학 부교수.

## I. 서론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예방과 이라크 민주정부 설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충격과 경외(Shock & Awe)’<sup>1)</sup>로 불릴 만큼 압도적인 화력과 첨단무기를 동원해 이라크군을 조기에 무력화하고 후세인을 권력에서 축출했다. 하지만 이후의 안정화 노력은 실패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른 지금까지도 중동지역의 안정과 민주적인 정치질서 확산이라는 미국의 목표는 소원해 보인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은 단극체제의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sup>2)</sup> 하지만 압도적인 군사력, 정보력, 그리고 대내외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까? 전투의 승리를 전쟁의 승리로 전환시키지 못한 패착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가? 단순한 지도층들의 전략적 판단착오인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 예컨대 미국의 역할이나 무력사용의 목적과 방법과 관련된 미국적 사고방식이 빚어낸 결과인가? 만약,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존재하고 그것이 전략적 선호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은 국제정치 이론은 물론 미국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라크 개입의 실패를 두고 많은 연구와 분석이 제기되어왔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요인을 찾아내고 그 인과관계를 구명하는 연구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의 두 갈래로 구분된다. 먼저 미시적인 접근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관관계를 추적하기 용이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실패, 대내외적 반대 여론의 확산, 안정화 작전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1) ‘충격과 공포’로 종종 번역된다. 하지만 저자는 ‘Awe’가 사전적으로 단순한 ‘공포감’보다는 놀라움과 공포가 혼재된 상태에서의 ‘경외감’을 의미하고, 실제 전략적 개념에 있어서도 미국의 첨단 군사력에 대한 공포심은 물론 놀라움, 상대적 무기력감, 존경 등 모순적인 심리상태를 강조하기 때문에 ‘경외’로 번역하였다.

2) William C.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1999), pp. 5-41.

오류가 주요 패인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35년간 이라크를 통치해온 집권 바트당의 성급한 해체, 이라크 전쟁의 지휘권에 있어 적절한 민간 관계 균형의 파괴, 중동 지역 내 이슬람 종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에 대한 문화적 이해 결핍 등도 실패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3)</sup>

한편,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이라크 전쟁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중동지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전략의 부재,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집착, 또는 미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같이 주로 관념적인 변수들을 실패의 원인으로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먼저 이근욱은 미국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혁신에 집중하느냐며 미래의 전쟁, 즉 군사력이 사용되는 국제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sup>4)</sup> 대전략 변화의 관점에서 이라크 전쟁을 바라본 밀러(Benjamin Miller)는 “냉전의 경쟁체제가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요구했다면, 9/11 테러는 패권적 지위를 획득한 미국이 정치적 이념의 확산을 추구하는 공격적 자유주의를 택하도록 종용했다”라고 분석하였다.<sup>5)</sup>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이 밀러와 유사하게 자유주의 확산을 위한 개입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6)</sup> 특히 미어샤이머(Mearsheimer)는 미국의 국제적 개입이 ‘자유주의적 패권(liberal hegemony)’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유주의 질서 확산이 국가 간 분쟁을

3) 정보 실패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Robert Jervis, “Reports, politics, and intelligence failures: The case of Iraq,”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9, No. 1 (2006), pp. 3-52; Richard K. Betts, “Two faces of intelligence failure: September 11 and Iraq’s missing WM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22, No. 4 (2007), pp. 585-606. 부시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David Mitchell and Tansa George Massoud, “Anatomy of failure: Bush’s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Iraq war,” *Foreign Policy Analysis*, Vol. 5, No. 3 (2009), pp. 265-286. 바트당 해체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James P. Pfiffner, “US blunders in Iraq: De-Baathification and disbanding the army,”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25, No.1 (2010), pp. 76-85.

4)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시아』 제17권 제1호 (신아시아연구소, 2010), pp. 137-161.

5) Benjamin Miller, “Explaining changes in US grand strategy: 9/11, the rise of offensive liberalism, and the war in Iraq,” *Security Studies*, Vol. 19, No. 1 (2010), pp. 26-65.

6) 대표적인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와 윌트는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전통적 억지 및 봉쇄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찍이 이라크전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John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An unnecessary war,” *Foreign Policy*, Vol. 134 (2003), p. 50.

억지하고 국제적 안정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sup>7)</sup>

현실주의자들이 이라크전의 실패를 자유주의 확산을 위한 불필요한 개입의 귀결로 보았다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전략문화 연구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강박을 포함하여 미국 사회에 내재된 관념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 먼저, 파렐(Theo Farrell)은 민주평화론의 전제와는 달리 미국 전략문화의 관념적 토대인 자유주의가 공격적인 제국주의로 표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라크 전쟁은 자유주의 제국이 군사력 사용에 있어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해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주장한다.<sup>8)</sup> 한편 불리(Benjamin Buley)는 미국의 실패가 1970년대에 제기된 ‘상대의 전멸을 추구하는 미국식 전쟁수행 방식(American Way of War)은 전쟁의 탈정치화를 야기해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라는 위글리(Russel Weigley)의 명제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9)</sup> 그에 따르면, 냉전 이후 미국은 군사기술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추구하면서 군사적 수단의 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쟁은 정치의 연속’, ‘군사력은 국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로부터 멀어졌다.<sup>10)</sup>

이처럼 미국의 행동을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문화, 관념, 가치관, 정체성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고려함으로써 힘의 균형, 위협, 상대적 군사력 등을 위주로 분석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시 현실주의자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sup>11)</sup> 미어샤이머는 이론에 규범적인 지위를 부여하며,

7) John Mearsheimer,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8), pp. 152-187.

8) Theo Farrell, “Strategic Culture and American Empir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5, No. 2 (2005), p. 13.

9) Ben Buley, *The New American Way of War: Military Culture and the Political Utility of Force* (Oxfordshire: Routledge, 2007), p. 134. 위글리(Weigley)의 저서는 미국의 전쟁 수행방식에 대한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연구이다. Russell Frank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10) Buley (2007), pp. 125-127.

11) *Foreign Policy*, October 12, 2004.

“생존을 위해서 강대국들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sup>12)</sup>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당위성에 대한 강조는 이론이 가지는 규범성의 한계에 대한 인정과 다름없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패권에 대한 비판과 경고는 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미국의 전략적 선호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sup>13)</sup> 둘째, 문화적 접근은 국제체제의 구조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접근을 보완하여 국가의 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전략문화라는 변수를 도입할 경우 국가의 행동에 있어 국제체제가 미치는 영향과 특정 국가 자체의 속성이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오늘날 단극체제에 대한 연구에서 있어, 체제의 영향과 단극체제 중심국가인 미국의 영향을 구분하고, 두 가지 변수의 상호관계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 끝으로, 전략문화 연구는 권위주의 및 독재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이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 미국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예컨대, 전략문화적 접근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이 미중경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전략문화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방법론적 보완을 위해 전략문화의 개념과 세대별로 대표적인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략적 행동에 있어 정책결정자들과 군사전략가들이 가진 예외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고, 조직문화라는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미국의 전략문화를 살펴본다. 미국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 역사적 경험, 국민들의 신념체계 등으로 형성된 전략문화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무력 사용의 목적 및 원칙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어 이라크전 사례에서는 관측 가능한 정책결정자들의 행동과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문화와 군사적 개입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이때

12)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p. 11.

13) 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연구는 다음을 참고. Mearsheimer (2018); Stephen M. Walt, *The Hell of Good Intentions: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Andrew J. Bacevich, *Twilight of the American Centu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8).

속칭 ‘치킨호크(Chickenhawk)’라고 불리었던 미국의 신보수주의 집단의 득세와 그들의 조직문화가 미국의 이라크 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한다.

## II. 전략문화

일반적으로 전략문화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국가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패턴’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문화는 전략적 행위자들이 결정을 할 때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4)</sup> 하지만 사실 전략문화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에 견주어 볼 때 놀랍게도 짧다. 1930년 영국의 군사이론가 리델 하트(Liddell Hart)는 나폴레옹의 소모전 위주의 절대전쟁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영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영국만의 독특한 방식(British Way in Warfare)’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5)</sup> 하지만 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의 연구는 1970년대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략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존스톤(Alastair Iain Johnston)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연구를 세 개의 세대로 구분한 바 있다.<sup>16)</sup> 아래에서는 세대별 주요 연구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적 관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 14) 전략문화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조. Jack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CA: The Rand Corporation, 1977); Ken Booth,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ffirmed,” in C. G. Jacobsen (ed.), *Strategic Power: USA/USS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p. 121-128; A. I. Johnston,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pp. 32-64; C. S. Gray, “Strategic Culture as Context: The First Generation of Theory Strikes Back,”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5, No. 1 (1999), pp. 49-69; Kerry Longhurst, *Germany and the Use of For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 15) Lawrence Freedman, “Alliance and the British way in warfar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2 (1995), p. 145.
- 16) Johnston (1995), pp. 36-43.

## 1. 1세대 전략문화 연구

1세대 연구가들은 소련의 전략가들이 미국식 전략적 합리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문화에서 찾았다. 사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쉘링(Thomas Schelling)과 칸(Herman Kahn)의 연구로 대표되는 합리적 게임모델에 기초한 '핵 억지' 이론의 황금시대였다.<sup>17)</sup> 하지만 1세대 연구자들은 게임이론이나 합리적 선택 분석에 기초한 연구의 한계를 직시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주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전략을 접근하였다. '전략문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스나이더(Jack Snyder)인데, 그는 전략문화를 "핵전략과 관련하여, 교육이나 모방을 통해 국가의 전략 공동체 구성원들이 얻게 된 관념들, 감정적 반응들, 습관적 행동 패턴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소련 핵전략의 특징이 전략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sup>18)</sup>

스나이더의 선구적인 연구에 영감을 얻은 그레이(Colin S. Gray)와 존스(David Jones)는 미소 간 핵전략의 차이가 역사적 경험, 정치 문화, 그리고 지리와 같은 독특한 환경 변수들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 주장하였다.<sup>19)</sup> 그레이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무력 사용에 대해 독자적인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핵전략에도 영향을 주어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핵전쟁을 통한 승리를 거부하고 소련에 대한 핵 억지력의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한다.<sup>20)</sup>

문화와 전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1세대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첫째, 전략문화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전략문화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다수의 요인들로 '중층결

17) Thomas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With a New Preface and Afterwar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Herman Kahn, *The Nature and Feasibility of War and Deterrenc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60).

18) Snyder (1977), p. 9.

19) David R. Jones, "Soviet strategic culture," in Carl G. Jacobson (ed.), *Strategic Power: USA/USSR*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0), pp. 35-49; Colin S. Gray, "National style in strategy: The American examp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2 (1981), pp. 21-47.

20) Gray (1981), p. 21.

정(overdetermined)'되어 있다고 보았다. 일부 학자는 조직문화, 지리, 기술, 전통, 국가이데올로기는 물론 심지어 국제체제의 구조마저도 무형적인 전략문화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전략문화가 것처럼 사실상 관련된 모든 요인들의 산물이라면, 전략문화적 접근은 국가의 모든 행위를 설명하며 과학적 접근에 요구되는 반증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스나이더 역시 전략문화 중층결정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상대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국가 간 차이에 집중하고, 그러한 차이를 중층결정된 전략문화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비판했다.<sup>21)</sup>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레이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문화를 단순히 서로 경쟁하는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오류'라고 반박하면서, "모든 전략적 행동은 문화적 주체인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략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sup>22)</sup>

둘째, 행동과 전략문화와의 관계 설정이다. 그레이를 포함한 1세대 연구자들은 행동을 전략문화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전략적 사고방식과 행동과의 밀접한 인과관계를 암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뒤섞어 문화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기계적 결정론을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sup>23)</sup> 스스로를 3세대로 분류한 존스틴 역시 전략문화에 있어 검증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변수와 행동을 포함한 물질적 변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셋째, 행동을 전략문화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전략문화와 행동의 불일치 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했다. 1세대 연구자들은 전략문화가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전략문화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전략문화가 지배층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고, 전략문화와 행동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전략문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다.

21) Jack Snyder,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caveat emptor," in Carl G. Jacobson (ed.), *Strategic Power: USA/USSR*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0), pp. 3-9.

22) Colin S. Gary, "Strategic culture as context: the first generation of theory strikes back,"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5, No. 1 (1999), pp. 49-69.

23) Johnston (1995), p. 37.

24) Alastair Iain Johnston, "Strategic cultures revisited: reply to Colin Gra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5, No. 3 (1999), p. 521.

## 2. 2세대 전략문화 연구

1세대가 문화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전략문화와 행동 간의 괴리를 설명하지 못했다면, 2세대 연구는 전략문화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2세대 연구는 국가지도자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공표된 교리와 그렇지 않은 교리를 구분하고 마치 정신분석학에서 행동의 무의식적 의미를 추적하는 것과 같이 전략적 담론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들에게 전략문화는 정치적 지배의 도구였다. 전략문화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행동을 선택하거나, 적을 상대로 국가의 폭력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정당성과 논리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연구의 예로, 클라인(Bradley Klein)은 국가정책결정자들이 내놓는 전략적 수사와 실질적인 행동의 간극에서 그들이 가진 문화적 패권의 동학을 읽어내었다. 클라인의 주장에 따르면, 냉전시대 미국 엘리트들이 주창한 억지전략은 선언적인 전략과 실제 군사작전 전략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영역을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의 실질적인 작전 전략은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무력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국가 엘리트들은 억지와 보복에 기초한 방어적 전략개념을 선언함으로써 자신들이 추진하는 국가전략의 정당성과 대내외적 수용 가능성을 보장받으려 하였던 것이다.<sup>25)</sup>

2세대 연구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략문화라는 상징적 담론 체계와 행동과의 관계이다. 기존 연구의 단점이 행동과 전략문화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는데, 2세대 연구에서 그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략문화의 도구성을 밝혀내어 문화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였지만, 둘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 2세대 연구는 전략문화와 행동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절, 국가의 전략적 선호를 형성하는 데 있어 엘리트들과 특정

25) Bradley S. Klein, "Hegemony and Strategic Culture: American Power Projection and Alliance Defence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4, No. 2 (1988), pp. 139-140.

집단이 지닌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 3. 3세대 전략문화 연구

1990년대 구성주의의 등장과 함께 문화적 해석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sup>26)</sup> 이 시기에 등장한 3세대 연구는 기존의 방법론을 보완하여 전략 문화에 독립적인 설명체계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엄밀한 이론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문화의 개념에서 ‘행동’의 요소를 배제시킴으로써 1세대 연구가 범했던 동어반복의 오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고, 경험의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의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략문화의 영향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정한 전략적 선택 사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구조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에 도전하였다. 셋째, 군사문화, 정치-군사 문화, 조직 문화와 같은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조직의 문화적 성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전략문화의 지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재편성을 계기로 발생하는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략문화 세대론을 제시한 존스틴은 방법론 보완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존스틴은 이론체계 정밀화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과업을 제시했다. 첫째, 사회 내부의 여러 행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드러나는 전략문화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확인된 전략문화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sup>27)</sup> 먼저, 전략문화 포착을

26) Jeffrey S. Lantis, *Strategic Cultur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 36. 구성주의 저자들의 연구들에서 국가안보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물질적 요인보다는 관념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Mary Fainsod Katzenstein, Peter J. Katzenste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Yosef Lapid, “Culture’s Shop: Returns and Departur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Yosef Lapid and Friedrich Kratochwil (eds.), *The Return of Culture and Identity in IR Theory* (Boulder: Lynne Rienner, 1996), pp. 3-20.

27) Johnston (1995).

위해서는 엘리트나 군사전략가들의 글이나 논쟁, 국가 전략문서나 정책보고서, 또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와 같이 안보에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용적인 어구나 상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 선호와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어서 인식된 전략적 선호가 실질적인 정치적,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엘리트들과 같은 전략문화 담지자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존스톤은 외부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범주화하고 목록화하는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ping)' 개념을 활용하면, 특정한 정책결정과 개인의 전략적 선호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한편, 키어(Elizabeth Kier)는 문화와 군사교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직문화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키어는 군조직이 구조적, 기능적 분석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략문화가 군사전략적 행동을 제약하는 테두리를 설정한다면 군은 나름의 조직문화에 기반하여 적절한 군사교리를 수립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다시 말해, 군의 조직문화는 민간인 정책결정자들과 군사교리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 키어와 유사한 관점에서 레그로(Jeffrey Legro)는 하나의 조직문화로서 군사문화가 2차 대전의 급작스런 확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sup>30)</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의 특정한 수단이 한 국가의 지배적인 군사문화와 일치할 때에는 전쟁이 확산되었지만, 반대일 경우 국가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8) Johnston (1995), p. 51. 존스톤은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중국의 전략문화를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적대적 외부환경과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으로 인해 평화적 공존을 중시하는 '유교-맹자적 패러다임(Confucial-Mencial paradigm)'보다는 적대적 공존에 기반한 '호전적 패러다임(Parabellum paradigm)'이 지배하게 되었다. Alastair Iain Johns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 61-108.

29) Elizabeth Kier, "Culture and Military Doctrine: France between the Wa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pp. 6-93.

30) Jeffrey W. Legro, "Military culture and inadvertent escalation in World War II," *International Security*, Vol.18, No. 4 (1994), pp. 108-142.

#### 4. 전략문화 방법론 개선

3세대에 이르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략문화가 독립적인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현실주의자들은 문화적 접근법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이론적 관점, 특히 현실주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특정한 사례들에만 주목하는 경향의 문제점을 제기한다.<sup>31)</sup> 현실주의에서 국가의 전략적 목적은 단순한 생존에서부터 무력을 동원한 위협의 즉시적인 해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상정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의 범위는 넓다. 따라서 특정한 사례를 놓고 현실주의와 전략문화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비교하려는 시도는 현실주의 이론체계를 자의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전략문화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 개선은 현재진행형이다. 본 연구는 3세대 연구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조직문화들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전략문화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3세대 전략문화 연구자들은 전략적 행동에 있어 정책결정자들과 군사전략가들의 예외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문화라는 변수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거나 ‘다른 전략적 선택들에 대한 인식을 변형시킨다’는 주요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문화적 요인들의 기능과 역할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조직문화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충돌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지배적인 전략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한 측면이 있다.

요컨대, 전략문화 방법론의 보완을 위해 먼저, 전략문화가 인식이나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관념적인 요인은 물론 외부위협이나 기술 도입 등과 같은 물리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 국가 내에 다양한 하위문화가 있고 이들 역시 외부에 대한 반응이나 상호 교류나 경쟁 등을 통해 변화하듯이, 다양한 집단들의 조직문화 역시 수평

31) 전략문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 Michael C. Desch, “Culture clash: assessing the importance of ideas in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1998), pp. 141-170.

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수직적이고 경쟁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인정 투쟁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전략문화와 조직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어떠한 조건에서 특정집단의 전략문화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략문화적 접근에서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미국의 전략문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III. 미국의 전략문화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성향과 태도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다른 어떤 집단과 마찬가지로 모든 미국인들의 사고는 동일하지 않다. 특정 정책에 있어서도 연령대, 성별, 정치적 성향, 종교,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 인종 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누구는 미국이 터무니없이 많은 자원을 국방에 투자하고 국익이 달려있는 많은 지역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지속적인 국제적 개입과 이를 위한 군사력 개선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만의 일반적인 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인들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 즉 전략문화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미국이 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초기 식민지부터 이어진 역사적 경험은 독특한 전략적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번 장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전략문화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반클라우제비츠적 전통: 탈정치성과 탈전략성

먼저, 미국의 전략문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탈정치적(apolitical)이고 탈전략적(astrategic) 전통이다. 미국인들은 국가 간의 군사적 분쟁을 ‘정치적 연속’이라기보다는 ‘정치가 실패한 징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성향은 미국의 근본적인 정치철학,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조건, 그리고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건국에 영향을 주었던 정치철학은 다른 무엇보다 질서와 안정이 삶이 기준이라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정치적 전통은 유럽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중에서도 로크(John Locke)의 정치철학은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해 수용되어 독립혁명과 헌법제정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건이었다. 그는 모든 인간은 내재된 인간성과 합리성을 통해 올바른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sup>32)</sup> 이러한 견해는 홉스(Thomas Hobbes)의 철학과 구별된다. 홉스는 자연상태에 있는 개인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잔인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없을 경우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즉 전쟁 상태는 지속된다고 상정했다. 하지만 로크식 사고방식에 따르면, 합리적인 존재들은 투쟁을 바라지 않는다. 폭력은 비도적일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비자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지를 적절히 반영하는 국가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았다. 무력의 사용은 부적절하고 부덕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문화는 전쟁과 정치를 동일한 연장선에서 놓기보다는, 전쟁을 비자연상태 또는 비합리성에 의해 추동된 일탈로 간주하는 탈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

미국 전략문화의 탈정치적 성향은 지리적 조건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좌우에는 국력 투사를 제한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두고 있고, 북쪽과 남쪽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이웃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유럽의 강대국과는 달리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우려하지 않아도

32) Lee Ward, "Locke on the moral ba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3 (2006), pp. 691-705.

되었기에 미국은 안정적인 안보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지리적인 고립성과 실존적인 안보 위협의 부재 속에서 미국인들에게 전쟁은 평화라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문화는 영국과의 1812년 전쟁, 남북전쟁,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일시적인 분쟁을 제외하고는 장기간의 평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탈정치성은 탈전략성으로 이어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미국식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는 정반대에 놓여 있는 양극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이나 무력 사용의 위협에 의존하는 것은 국제적인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이다.<sup>33)</sup>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연구가들은 미국 전략문화를 '반클라우제비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34)</sup> 요컨대, 미국인들에게 전쟁은 병적인 일탈이기에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었다.

전쟁을 정책의 실패로 간주하는 문화적 성향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전략가였던 와일리(J. C. Wylie)의 주장에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인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공격적 성향이 없는 국가에게 전쟁이란 사실상 정책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 이전의 모든 정책은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sup>35)</sup>

전쟁과 정치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군과 민 사이의 임무 분할로 이어져, 평시는 정책지도자의 영역으로 전시는 군 고유의 영역으로 양분된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군사정책은 정치적 목적이나 합의에 대한 적절한 고

33) 전통적으로 미국은 전쟁의 '수단에 대한 정당성(Jus in bello)'은 물론 '명분이나 동기에 있어서의 정당성(Jus ad bellum)'을 중시했다. 특히 후자에 대한 강조는 방어를 위해 예방적(Preventive) 또는 선제적(Preemptive)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성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향은 9/11 이후 대전환을 맞게 된다.

34) Brice Harris, *America, Technology and Strategic Culture: a Clausewitzian Assessment* (New Brunswick, NJ: Routledge, 2008), p. 4.

35) J. C. Wylie, *Military Strategy: A General Theory of Power Control*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67), p. 80.

려 없이 생성되고, 정치적 결정은 군의 역량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없이 이루어지기 십상이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발행된 미육군의 전략문서에서는 반클라우제비츠적인 미국 전략가들의 사고방식이 투영되어 있다.

정책과 군사전략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다. 전략은 정치가 멈추었을 때에야 시작된다. 일단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면, 군인들은 전략과 지휘통제는 정치의 영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sup>36)</sup>

## 2.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존 로크의 철학과 같은 자유주의 사상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고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었다.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과 평화에 대한 선호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 독특한 미국식 접근 방식을 형성하였다.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은 건국 이후 미국 자신의 이미지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었다. 19세기 근대산업화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에 이은 20세기 명실상부 세계 경제, 군사 대국으로의 자리매김은 미국 시스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자유주의적인 삶의 방식, 즉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미국적인 삶의 방식으로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충동은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역사를 관통하여 지속되어 왔다.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이미 건국 이전부터 이상주의적이고 메시아적인 사명감을 키워왔다. 17세기 청교도들을 신대륙으로 이끌었던 정치지도자 존 윈스롭(John Winthrop)의 선상설교에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언덕 위의 집(City upon a hill)’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빌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방할 수 있는 등대와

36) Thomas G. Mahnken, “US strategic and organizational subcultures,” in Jennie L. Johnson, Kerry M. Kartchner, Jeffrey A. Larsen (eds.), *Strategic Cultur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 71.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신성한 사명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sup>37)</sup> 실제로 ‘언덕 위의 집’ 메타포는 1961년 케네디의 연설, 레이건 대통령의 1980년 취임 전 연설과 1989년 고별사, 2006년 오바마 연설, 2012년 롬니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연설 등 당파를 초월하여 정치지도자들의 담론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메시아적 사명감은 건국 이후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어서 자국의 영향을 세계로 확대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1840년대 멕시코 전쟁 당시 미국의 유명한 정치지도자였던 앨버트 갈라틴(Albert Gallatin)의 연설에는 그와 같은 문화적 전통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미국인들의 임무는 세계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범적인 공화국’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고도의 지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높은 수준의 시민적·정치적 가치와 도덕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sup>38)</sup>

미국인들은 미국적 모범이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역사학자 홉스봄(Hobsbawm)은 “미국이 제국주의적 임무를 떠맡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자국의 자유로운 사회가 다른 사회들에 비해 우월하고 지구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메시아적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sup>39)</sup> 메시아적 사명감은 세계를 평화롭고 조화로운 자연상태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국제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1차 대전 당시 미국의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을 일종의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였고, 국제연

37) John Winthrop,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Boston: Barnes&Noble, 1838) pp. 1929-1947.

38) Frederick Merk, Lois Bannister Merk and John Mack Faragher, *Manifest Destiny and Mission in American History: A Reinterpret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p. 252-53.

39) Eric Hobsbawm, *On Empire: America, War, and Global Supremacy* (New York: Pantheon, 2008), p. 76.

맹의 설립을 제창하였던 윌슨 대통령은 그와 같은 신념의 대변자였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유엔의 설립이나 마셜플랜과 같은 국제적 개입으로 표출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는 지속되어, 클린턴 행정부가 탈냉전기의 미국의 대전략으로 내세운 ‘개입(Engagement) 및 민주주의 확장(Democratic Enlargement) 독트린’<sup>40)</sup>의 이념적 근간이 되었다.<sup>41)</sup>

### 3. 극단성과 절대적 승리

탈정치적·탈전략적 성향과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풍토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성전(Crusade)의 추구, 전시와 평시를 극단의 대립으로 구분하는 태도, 그리고 무제한적인 전쟁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먼저, 미국인들은 자국이 수행하는 전쟁을 악의 세력에 대한 성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유럽식 힘의 정치를 거부하고 정치와 전략을 분리시켜 사고하는 성향이 전략문화에 있어 이분법적인 태도를 양산해 내었다고 주장한다. 헌팅턴의 말을 빌리면, “성전이 아니라면, 미국인들에게 전쟁은 전쟁이 아니다.”<sup>42)</sup> 지난 20세기 미국의 지도자들이 독일의 히틀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전체 혹은 독재국가의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동안 성전의 수사는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두고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 국가의 정권 교체를 촉구한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기보다는 ‘프로이트적 실연’ 혹은 예외적인 위기상황에서 본심이 여과

40) Douglas Brinkley, “Democratic enlargement: the Clinton doctrine,” *Foreign Policy*, No. 106 (1997), p. 110.

41) 윌슨주의와 같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마상윤, “미국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 전파: 동기와 딜레마,” 『국가전략』 제11권 제4호 (세종연구소, 2005), pp. 41-68. 마상윤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대외정책의 기저에 ‘안보 중심성’이 깔려 있음을 강조하며, 그러한 노력이 “직접적인 (미국의) 안보 이해와 상충될 경우 민주주의 전파의 목표는 대체로 포기된다”라고 주장한다.

42)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ractice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 152.

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팅턴은 전시에 미국인들이 내보이는 공격성과 맹렬함은 평시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의 이면이라고 주장한다.<sup>43)</sup> 그는 미국인들이 평시에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선호하다가도, 악의적인 세력에 대한 무력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때에는 고강도 군사작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성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전쟁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로 이어져, 전쟁을 전적으로 포용하거나 반대로 절대적으로 거부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미국적 사고방식에 깊숙이 자리 잡힌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은 국가의 전략적 이익 추구에 대한 도덕적 타당성 검증을 거부한다. 따라서 전쟁은 자유주의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반대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군사적 수단을 정치적 도구 중 하나로 간주하는 클라우제비츠적인 관점과 구별된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미국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한번 전쟁을 다짐하면 적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하는 절대적 성향을 강하게 보여 왔다. 남북전쟁 중에, 북부연합을 이끌던 링컨 대통령과 그랜트 장군은 남부연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군사적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1차 대전 당시 유럽원정군의 사령관이었던 퍼싱(Pershing) 장군은 타협을 선호하였던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독일의 무조건적 항복을 추구하였다. 2차 대전 중 루스벨트 대통령과 군의 지휘부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인 리프만(Walter Lippmann)은 미국의 절대적 승리와 적국의 절대적 패배를 추구하는 성향의 기원을 미국식 예외주의에서 발견한다. 미국인들은 스스로에게 예외적인 지위를 부여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국가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를 두고 그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위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에 대한 무력적 모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공격적 행위를 감행한 정부의 무조건적 항복이나 정권의 전복을 제외하고

43) Huntington (1981), p. 151.

는 정당하게 마무리될 수 없다”<sup>44)</sup>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승리에 대한 선호로 인해 미국인들은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전쟁에 대해 커다란 반감을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지도부는 단지 현상복원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생각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예컨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완벽한 승리 이외의 모든 전략은 유화정책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공군에 대한 핵 공격을 요구했다.

미국 전략문화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위글리(Russell Weigley)는 전쟁에서 조건이나 제약을 거부하고 절대성을 추구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전쟁수행 방식(American Way of War)’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sup>45)</sup> 그는 미국식 전쟁수행 방식의 주요 특징을 전쟁의 모든 수준—전술, 작전, 전략—에서의 공격성, 결정적인 전투 추구,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려는 욕구로 요약하고, 그로 인해 미국은 ‘상대 정권의 완전한 전복, 모든 군사력의 파괴를 전쟁의 목표로 삼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sup>46)</sup> 이러한 성향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에 대해 위글리는 ‘전략에 대한 협소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면, 전쟁 과정이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군사적 결과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게 된다’라고 우려하였다.<sup>47)</sup> 악의적인 상대국의 체제 전복이나 완전한 소멸을 전쟁의 목표로 정하게 되면, 정치적 맥락이나 비군사적 영역에 대한 고려는 자리를 잃기 마련이다.

44)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London: Allen and Unwin, 1952), pp. 25-26.

45) Weigley (1973), p. 22. 위글리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으로는 다음을 참고. Brian M. Linn, “The American Way of War Revisited,”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6 No. 2 (2002), pp. 501-533; Max Boot, *The Savage Wars of Peace: Small Wars and the Ris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02).

46) Weigley (1973), p. xxi.

47) Weigley (1973), pp. xviii-xix.

#### IV. 미국의 전략문화와 '이라크 자유 작전'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링컨호의 선상에서 주요 작전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이후, 이라크 작전은 미국의 예상과는 반대로 전개된다. 후세인과 그의 정치적 지지 세력인 바트당이 와해되자 이라크의 정치질서는 균열되기 시작한다. 그 틈을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보복 살해 등 종파 분쟁이 파고 들었고, 무장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이라크 재건 작전을 수행하던 수천 명의 미군이 전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뒤늦게 지상군을 증원하였으나 '이라크의 안정화와 민주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sup>48)</sup> 2007년 병력 증파 (Surge)에 이은 장기간의 분투 끝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15일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였다. 12월 18일 미군은 이라크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보인 행동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군사전략의 목적과 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드러난다. 첫째, 구상 단계에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이라크의 국가건설과 나아가 중동의 민주적 질서 확산이라는 장대한 정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했다. 이는 전쟁과 정치의 영역을 분리시켜 사유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전쟁수행 방식과 구분된다. 1991년 걸프전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 보인다. 당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고 목표 역시 제한적이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전쟁 개시 100시간 만에 목표를 달성한 이후,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중단되었다. 미군의 전사자는 14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9/11 이후 이라크 자유 작전은 달랐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후세인과 바트당이 축출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자유시장제도와 민주적 정치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48) 2003년 부시의 이라크 침공에서부터 2011년 오바마 정부의 철군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전쟁의 변화를 내전의 격화와 종파전략에 의한 안정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이근욱, 『이라크 전쟁』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둘째, 이라크 재건과 국가건설이라는 원대한 사회공학적 목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원은 투입되지 않았다. 단기간 내 목적달성을 위해 가용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멸(Total annihilation)’의 전략적 전통과는 달리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였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교훈으로 형성된 와인버거 독트린(Weinberger doctrine)이나 그것의 아류로서 걸프전에서 강조되었던 파월 독트린(Powell doctrine)의 ‘압도적 군사력(overwhelming force)’ 개념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두 가지 특이점, 즉 군사적 수단의 정치적 유용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목표와 자원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 1. 자유주의적 개입정책과 신보수주의 세력의 득세

앞서 미국의 전략문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에 따라 국제질서를 변형시키려는 충동은 미국 역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은, 일찍이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통해 천명했던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정통성과 우월성을 인정받게 된 자유주의적 이념 및 제도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부시 대통령의 2기 취임연설에서도 민주주의 확산은 미국이 주도로 도모해야 하는 인류적 사명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sup>50)</sup>

하지만 흥미롭게도 2000년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선거활동을 할 때만 하여도 국가건설을 위한 무리한 개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부시는 ‘미국이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순 있어도 평화를 유지

49) 클린턴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이 담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다음을 참고. William J. Clint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White House, 1995).

50) The White House President George W. Bush, “President Sworn-In to Second Term,”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 (검색일: 2019년 7월 30일).

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몫'이라고 단언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보스니아와 코소보를 비롯한 발칸반도에서 진행 중인 일체의 평화유지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sup>51)</sup> 나중에 부시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맡게 되는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역시 “군이 일반 행정업무와 치안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임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역량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며 군사 이외의 영역에 대한 군의 개입을 우려했다.<sup>52)</sup> 이를 두고 일부 비평가들은 대선기간 동안 부시 대통령이 내보인 정치적 수사와 실제 이라크에서 추구한 전략을 비교하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한편, 문화적 관점에서 이라크전을 분석한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자유주의 사상의 자기추동적인 파급력을 신뢰한 나머지 애초에 국가건설 보다는 자유주의 확산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불리(Buley)는 “부시 정권은 9/11 이전에 가졌던 국가건설에 대한 거부감과 9/11 이후의 중동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한다.<sup>53)</sup>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은 미국의 전략문화를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한 나머지, 9/11과 같은 예외적인 충격이 일반적인 국가구성원은 물론 정책지도자들과 군사전략가들의 인식을 뒤흔들고 궁극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조직문화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이 후세인을 권력에서 축출한 이후에도 군사적 개입을 지속한 것은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 확산과 국가재건을 전략적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미국의 국제주의적 개입을 꺼렸던 정책결정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9/11이었다. 부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9/11 테러사건이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었다”라고 토로하였다.

당시 저는 우리 군이 보스니아와 소말리아에서의 평화유지작전에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에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프

51) Robert M. Perito, *Where is the Lone Ranger When We Need Him? America's Search for a Postconflict Stability Force*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4), p. 247.

52) *The New York Times*, October 21, 2000.

53) Buley (2007), p. 114.

가니스탄 작전은 궁극적으로 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재자로부터 그 나라를 해방시켰고, 해방 이후에 뭔가 더 좋은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비전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도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sup>54)</sup>

이라크전을 한 달 여 앞둔 2003년 2월, 부시 대통령은 전쟁의 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해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있기보다는 이라크의 민주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개입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라크’는 이슬람 국가들에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어 중동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55)</sup> 비슷한 시기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가진 연설에서, 그는 이라크에 대한 개입을 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독일에서의 노력에 비유하기도 했다.<sup>56)</sup>

이로써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국제적 관여 및 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계승한 셈이 되었다. 사실 그와 같은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이라크 정책과 일치했다. 1998년 미의회는 이라크의 정권교체에 이은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이라크 자유법(Iraq Liberation Act)’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승인한 이 법안의 목표는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적 정부의 수립을 도모하는 것’이었다.<sup>57)</sup>

2003년 11월, 후세인을 권력에서 축출한 이후 가진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민주화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민주혁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이른바 부시 독트린을 공표한다.

54) George W. Bush, *Decision Points* (New York: Crown Publishers, 2010), p. 205.

55) George W. Bush, “President Discusses the Future of Iraq,”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2/20030226-11.html> (검색일: 2019년 7월 15일).

56) *The New York Times*, “President Bush’s Nation-Building,” <https://www.nytimes.com/2003/02/27/opinion/president-bush-s-nation-building.html> (검색일: 2019년 7월 15일).

57) U.S. Congress, “Iraq Liberation Act of 1998,” <https://www.congress.gov/105/plaws/publ338/PLAW-105publ338.pdf> (검색일: 2019년 7월 30일).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할 경우,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미국 국민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라크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공의 소식은 다마스쿠스에서 테헤란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 자유가 모든 나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 중동의 심장부에 자유 이라크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세계의 민주혁명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sup>58)</sup>

이와 같은 부시 독트린에는 새롭게 세력화되어 외교안보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집단의 신념이 투영되어 있었다. 신보수주의는 20세기에 등장한 미국 특유의 사상으로,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미국식 예외주의는 물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고방식이 혼재되어 있다.<sup>59)</sup> 먼저,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처럼 힘을 중시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역할,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힘의 균형보다는 도덕적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현실주의와 결별한다.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들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에 대한 존중을 확산시켜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자유민주질서의 확산을 위해서는 미국이 지닌 힘, 특히 군사력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한다.<sup>60)</sup> 이와 같은 공격적인 자유주의 성향으로 인해 신보수주의는 '군화를 신은 윌슨주의(Wilsonianism in boots)'로 불리기도 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세력은 부시 행정부 내의 요직과 정책·학술 네트워크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미국의 전략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58) George W. Bush, "President Bush Discusses Freedom in Iraq and Middle East,"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11/20031106-2.html> (검색일: 2019년 8월 2일).

59) 후쿠야마는 신보수주의를 과잉현실주의와 과잉자유주의의 결합으로 규정했다. Francis Fukuyama, "The neoconservative moment," *The National Interest*, No. 76 (2004), pp. 57-68. 미국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백창재,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제9권 제3호 (세종연구소, 2003), pp. 83-104.

60) William Kristol and Robert Kagan, "Toward a neo-Reaganit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5, No. 4 (1996): pp. 18-32.

들은 미국이 가진 힘을 이용해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도덕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 여겼다. 그들에게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군사력은 미국의 안보이익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도구였다.

신보수주의적 비전이 가진 힘과 영향력에 힘입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군사력의 정치적 유용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판론은 낙관론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개입은 전략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 대한 고려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마련이다. 먼저, 전략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자국이 지닌 무기체계 및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특별한 위험 요인이나 돌발상황에 대한 우려 없이 이라크의 민주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다. 특히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확연히 다르고 그에 대한 이해가 낮은 지역에서, 민주국가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회공학적 프로젝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또한 국내정치 측면에서, 미국의 이라크 개입은 이른바 ‘베트남전 신드롬(Vietnam Syndrome)’으로 인해 전사상자나 민간인 피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중들을 상대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정책결정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사명에 대한 확신과 군사적 역량에 대한 과신은 정권교체 이후 이라크의 안정화와 국가건설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 2. 군사변혁과 목표와 수단 간의 불균형

이라크 민주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초기 군사작전은 물론 후세인 정권과 바트당을 축출한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을 자원을 투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부시 정권 행정부는 최소주의 접근법으로 기울게 된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는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달성한 최첨단 군사적 역량으로 단기간에 적의 군대를 마비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을 내세운다.<sup>61)</sup>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이후 가진 연설에서, 만약 이라크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어렵지 않게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이라크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민주적인 정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였다.

이라크는 이라크인들의 것이며, 우리는 그곳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이라크인들이 압제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기를 희망합니다. ...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서 재건을 위한 국제적 연합을 이끌게 된다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주둔하고 최대한 빨리 그것을 떠날 것입니다.<sup>62)</sup>

럼스펠드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가들은 주요 군사작전 이후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거의 반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 투입만으로도 이라크의 민주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전쟁에 앞서 미 국방부는 주요 전투작전 이후에는 7만 명 정도의 병력만 유지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3만 명의 병력만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sup>63)</sup>

일부 군의 지도자들은 럼스펠드의 계획에서 전략적 목표와 자원간의 중대한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했다. 2003년 1월 30일에 대통령과 군 지도층들이 가졌던 회의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신세키(Eric Shinseki)는 럼스펠드의 계획에 반대했다. 이후 이라크 침공 직전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신세키 장군은 당시 국방부가 구상하고 있던 병력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증명했다.<sup>64)</sup> 신세키는 안정화 작전을 위해 최소 35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럼스펠드는 그의 의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sup>65)</sup> 결국 신세키는 조기에 퇴역하게 된다. 이는 1차 걸프전 이후 유지되었던 민군관계가 역전

61) Donald Rumsfeld, "Transforming the military," *Foreign Affairs*, Vol. 81, No. 3 (2002), pp. 20-32.

62)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5, 2003.

63) Jeffrey Record, *Bounding the Global War on Terrorism* (Carlisle Barracks: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3), p. 39.

64) Michael R. Gordon and Bernard E. Trainor, *Cobra II: The Inside Story of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Iraq* (New York: Vintage Books, 2007), pp. 102-103.

65) Michael R. Gordon and Bernard E. Trainor (2007), p. 102.

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신보수주의 집단이 안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이다.

전후 재건이나 안정화 작전을 위해 대규모의 병력과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린스펠드 독트린의 전제와 같이 미국이 최첨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완전무결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러한 믿음은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던 2가지 핵심 작전개념인 ‘완벽한 파괴(Immaculate Destruction)’와 ‘신속한 지배(Rapid Dominance)’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 ■ 완벽한 파괴(Immaculate Destruction)

‘완벽한 파괴’는 적을 네트워크 또는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체계적 붕괴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라크와 전쟁을 앞두고, 공군작전사령부의 크로우더(Crowder)는 완벽한 파괴의 개념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과정을 전기회로를 차단시키는 절차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가 만약 전력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소를 찾아다니면서 전력을 무력화한다면, 아마도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 효과에 기반한 접근법을 이용해 전쟁에 있어서도 ‘만약 적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분석한다면, 핵심이 되는 적 전력 공급소 한 두 개만 제거하면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sup>66)</sup>

이처럼 완벽한 파괴에서는 효율에 기반을 둔 접근, 병렬적 공격, 체계적 붕괴의 세 가지 요소가 그 핵심이 된다.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적군의 전멸보다는 체계적인 마비이며,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체계적 마비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선형적이고 순차적으로 적을 공격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신속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sup>67)</sup> 군사시설이나 사회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무

66)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Strategy, Tactics, and Military Lessons* (Washington, DC: CSIS, 2003), p. 261.

67) John A. Warden III, “Air Theo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Karl P. Magyar (ed.), *Challenge and Response: Anticipating US Military Security Concerns* (Maxwell AFB: Air University Press, 1994), pp. 313-314.

차별적인 공격보다는 선별적인 공격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파괴 전술은 일견 전술·작전적 차원에서의 '소모전'을 통한 '전멸'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 행태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신속한 체계적 붕괴를 통해 적 능력의 마비, 즉 군사적 무능상태를 추구한다는 전략적 목표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요컨대, 전통적 접근이 대규모의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적의 완벽한 소멸을 추구했다면, 완벽한 파괴에 의한 접근은 핵심 역량에 대한 선별적인 공격으로 적 능력의 소멸을 추구하는 것이다.

#### ■ 신속한 지배(Rapid Dominance)

이라크전에서 활용된 또 다른 전략적 개념은 '신속한 지배'이다. 이 개념은 소모전이라는 전투수행방식을 거부하고, 전장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달성함으로써 완전히 격멸되기 전에 적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68)</sup> 이처럼 신속한 지배 전략은 군사기술에 기반을 둔 효과위주의 작전에 적군의 의지라는 심리적 차원이 더해진 것이다. 군사작전의 목적은 예상치 못한 정밀공격으로 적을 충격에 빠뜨려 의사결정 체계를 마비시키는 동시에, 대안이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줌으로써 아군의 의지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해 '충격과 경외'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속한 지배 개념을 처음 발표한 1991년 걸프전의 영웅 울만(Harlan Ullman)과 국방부 차관 출신인 제임스 웨이드(James Wade, Jr.)는 그것의 효과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핵공격에 비유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충격과 경외를 통한 신속한 지배 전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폭발한 핵무기의 충격과 동등한 수준의 비핵(Non-nuclear) 충격을 추구한다. 일본은 핵무기가 투하되기 전까지 자살을 감수하는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은 충격과 경외를 불러일으켜 일본 대중은 물론 국가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에 대한 전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일본인들은 비행기 한 대에 실려 온 무기의 파괴적인 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가해성은 경외의

68) Harlan K. Ullman et al., *Shock and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6), pp. 24-25.

상태를 만들어냈다.<sup>69)</sup>

이와 같은 전략 개념들에 의존한 미국의 전략가들은 베트남전 이후에 형성된 ‘압도적 무력’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총력전 대신 최소한의 군사력만 동원하는 방향으로 이라크와의 전쟁을 구상하였다. ‘압도적 무력’ 패러다임은 ‘파월 독트린’에서 제시된 군사력 사용 원칙 중 하나인데, 걸프전 당시 미국은 이 패러다임에 의거해 4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 68만 명을 페르시아만 주변에 결집시킨 이후에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sup>70)</sup> 하지만 이라크 자유작전 당시 중부사령관 프랭크(Franks) 장군은 미국이 가진 첨단 군사력을 동원하면 외과적인 수술처럼 이라크 정권을 참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실제로 프랭크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에게 작전 계획을 설명했을 때, 파월은 아군과 적군의 비율에 주목하며 아군의 보급로가 극도로 연장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하지만 프랭크 장군은 “이라크 전쟁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규모 전면에서 단계적으로 적을 압박하기보다는 급속 기동을 통해 핵심 지역에 대해 동시적으로 군사력을 집중한다면 적의 균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항변했다.<sup>71)</sup> 결국, 국방부의 럼스펠드 주도 하에 만들어진 전쟁 계획은 합동참모부의 전통적인 전쟁 준비에 따른 ‘시차별 부대 전개목록(TPFDL: Time-Phased Force Deployment List)’에 비해 더 적은, 최소한의 병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 군사전략가들은 군사기술혁명이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본질로 강조해온 불확실성과 우연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한 기술적 낙관주의에 기반한 군사전략은 바그다드 함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동과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의 정책결정

69) Harlan K. Ullman et al. (1996), p. 26.

70) 파월 독트린은 사실상 1984년 캐스퍼 와인버거 당시 국방장관이 만든 ‘와인버거 독트린(Weinberger Doctrine)’의 재현이다. 와인버거가 주창한 군사 개입의 6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핵심적인 국익이 달린 경우에 한해 군사력을 사용한다. 둘째, 일단 개입이 결정되면, ‘압도적 무력’의 개념에 입각해 총력으로 임한다. 셋째,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넷째, 군의 규모와 구성은 정치적 목표에 따라 결정한다. 다섯째,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Kenneth J. Campbell, “Once burned, twice cautious: explaining the Weinberger-Powell doctrine,” *Armed Forces & Society*, Vol. 24, No. 3 (1998), pp. 357-374.

71) Tommy R. Franks, *American Soldier* (New York: Harper Collins, 2004), p. 397.

자들은 정권 교체 이후의 파급효과, 즉 후세인과 바트당의 축출로 인한 정치적 공백이 정치적 혼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점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라크의 전후를 분석한 한 연구는 “지상작전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육군이 합동참모본부 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라크 자유작전의 4단계, 즉 바그다드 점령 이후의 비전투활동 위주의 단계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더 공을 들였어야 했다”고 결론지었다.<sup>72)</sup> 연구에 따르면, 미군이 동원한 군사적 수단은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는지 몰라도 정치적 공백 위에 미국이 추구했던 민주국가를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5년 북부 이라크의 탈 아파르(Tal Afar) 지역 탈취작전을 직접 지휘한 바 있는 맥매스터(H. R. McMaster)는 ‘군사기술에 대한 과장된 신념과 그로 인한 이라크 평화보장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수단에 대한 경시가 이라크 작전의 토대를 무너뜨렸음’을 토론했다.<sup>73)</sup>

요약하자면, 자유주의적 질서 확산을 통한 국익 증진이라는 열망에 사로잡힌 미국의 전략가들은 자국의 군사적 역량과 첨단군사기술을 과시한 나머지 독재나 불량 국가들의 해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의 효과를 경시하거나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오관했다. 이라크 민주화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가지게 되었던 군사력의 정치적 유용성에 대한 낙관주의는 군사기술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장을 기술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기술적 지배가 정치적 유용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어떻게 하면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성공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결정적인 질문과의 대면을 회피하도록 유도했다.

그와 같은 성향은 역설적으로 ‘전쟁과 정치의 분리’라는 미국의 전통적 전략 문화, 즉 반클라우제비츠적인 경향으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그와 같은 징후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양측 모두에서 발견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추적하고 소탕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장기간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 투입은 꺼렸

72) *New York Times*, June 29, 2008.

73) *New York Times*, February 8, 2008.

다. 이라크 자유 작전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국가건설이라는 무리한 목표설정과 미국의 힘에 대해 신보주의자들이 가졌던 맹신의 결합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어렵게 했다. 군사기술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신속한 정권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바그다드 점령 이후 베트남과 유사한 장기간의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정치적 목적 달성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무형적이고 관념적인 요소들이 국가의 전략적 선호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전략문화의 관점을 차용하여 이라크 자유 작전을 살펴보았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만 주목하면, 이라크전쟁은 정보실패에 이은 무리한 개입과 부실한 전후 계획으로 인해 실패한 하나의 사례에 그친다. 하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담론과 실제 수행된 군사적 행동들이 9/11이후 세력화된 신보수주의 집단의 전략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당시 지배적인 전략문화가 합리적인 전략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이라크전쟁의 실패에 기여한 셈이다. 관념적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물론 실질적인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국가의 지배적인 전략문화가 일종의 이데올로기처럼 작동하는 것이라면,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를 빌어 ‘정책결정자들과 전략가들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전략문화를 본래적이며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내재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물론 이와 같은 문화적 접근법이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과 방법론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전략문화는 지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분명 가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전략문화가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때 국가엘리트나 이익집단들은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 국가 내에도 여러 조직

들이 서로 다른 전략적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길항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특정 집단이 문화적 패권을 획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대해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략문화 연구는 3세대 연구자들이 조직문화의 개념을 도입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문화가 지니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다. 전략문화 접근은 힘, 위협과 같은 변수와 비교하여 관념적이고 문화적인 변수가 실제로 국가가 전략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신뢰성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한계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략문화 접근법은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기존의 이론적 접근법과 더불어 국가의 군사적 행동이나 대외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길을 제시한다. 특히 이와 같은 문화적 접근법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국제체제 힘의 균형이 가하는 일반적인 영향력과 미국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요인들이 가하는 개별적 영향력을 구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런 맥락에서 패권 시기 영국(1815~1914)과 탈냉전기 미국, 또는 냉전기 미소관계와 신냉전기 미중관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두 국가가 지닌 독특한 전략문화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접근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문화가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마상윤. “미국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 전파: 동기와 딜레마.” 『국가전략』 제11권 제4호 (세종연구소, 2005).
- 백창재.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제9권 제3호 (세종연구소, 2003).
-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제17권 (신아시아연구소, 2010).
- \_\_\_\_\_. 『이라크 전쟁』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 Bacevich, Andrew J. *Twilight of the American Centu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8).
- Betts, Richard K. “Two faces of intelligence failure: September 11 and Iraq’s missing WM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22, No. 4 (2007).
- Boot, Max. *The Savage Wars of Peace: Small Wars and the Ris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02).
- Booth, Ken.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ffirmed.” In C. G. Jacobsen (ed.), *Strategic Power: USA/USS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 Buley, Ben. *The New American Way of War: Military Culture and the Political Utility of Force* (Oxfordshire: Routledge, 2007).
- Bush, George W. *Decision Points* (New York: Crown Publishers, 2010).
- Campbell, Kenneth J. “Once burned, twice cautious: explaining the Weinberger-Powell doctrine.” *Armed Forces & Society*, Vol. 24, No. 3 (1998).
- Clinton, William J.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White House, 1995).
- Cordesman, Anthony H. *The Iraq War: Strategy, Tactics, and Military Lessons* (Washington DC: CSIS, 2003).
- Desch, Michael C. “Culture clash: assessing the importance of ideas in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1998).
- Donald Rumsfeld. “Transforming the military.” *Foreign Affairs*, Vol. 81, No. 3 (2002).
- Elizabeth Kier. “Culture and Military Doctrine: France between the Wa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 Farrell, Theo. “Strategic Culture and American Empir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5, No. 2 (2005).
- Franks, Tommy R. *American Soldier* (New York: Harper Collins, 2004).
- Freedman, Lawrence. “Alliance and the British way in warfar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2 (1995).

- Fukuyama, Francis. "The neoconservative moment." *The National Interest*, No. 76 (2004).
- Gordon, Michael R., and Bernard E. Trainor. *Cobra II: The Inside Story of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Iraq* (New York: Vintage Books, 2007).
- Gray, Colin S. "National style in strategy: The American examp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2 (1981).
- \_\_\_\_\_. "Strategic culture as context: the first generation of theory strikes back."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5, No. 1 (1999).
- \_\_\_\_\_.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Hobsbawm, Eric. *On Empire: America, War, and Global Supremacy* (New York: Pantheon, 2008).
- Huntington, Samuel P.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ractice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MA: Belknap Press, 1981).
- Jervis, Robert. "Reports, politics, and intelligence failures: The case of Iraq."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9, No.1 (2006).
- Johnston, Alastair Iai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_\_\_\_\_.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Spring 1995).
- \_\_\_\_\_. "Strategic cultures revisited: reply to Colin Gra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5, No. 3 (1999).
- Jones, David R. "Soviet strategic culture." In Carl G. Jacobson (ed.). *Strategic Power: USA/USSR*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0).
- Katzenstein, Mary Fainsod, Peter J. Katzenstein (eds.).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Klein, Bradley S. "Hegemony and Strategic Culture: American Power Projection and Alliance Defence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4, No. 2 (1988).
- Kristol, William, and Robert Kagan. "Toward a neo-Reaganit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5, No. 4 (1996).
- Lantis, Jeffrey. "Strategic culture: From Clausewitz to constructivism." In Jeannie Johnson, Kerry Kartchner and Jeffrey Larson (eds.). *Strategic Cultur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 Lapid, Yosef. "Culture's Shop: Returns and Departur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Yosef Lapid and Friedrich Kratochwil (eds.). *The Return of Culture and Identity in IR Theory* (Boulder: Lynne Rienner, 1996).
- Linn, Brian M. "The American Way of War Revisited." *Journal of Military History*,

- Vol. 66, No. 2 (2002).
- Lippmann, Walter.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London: Allen and Unwin, 1952).
- Longhurst, Kerry. *Germany and the Use of For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 \_\_\_\_\_.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8).
- Mearsheimer, John and Stephen M. Walt. "An unnecessary war." *Foreign Policy*, Vol. 134 (2003).
- Merk, Frederick, Lois Bannister Merk, and John Mack Faragher. *Manifest Destiny and Mission in American History: A Reinterpret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Miller, Benjamin. "Explaining changes in US grand strategy: 9/11, the rise of offensive liberalism, and the war in Iraq." *Security Studies*, Vol. 9, No. 1 (2010).
- Mitchell, David and Tansa George Massoud. "Anatomy of failure: Bush's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Iraq war." *Foreign Policy Analysis*, Vol. 5, No. 3 (2009).
- Perito, Robert M. *Where is the Lone Ranger When We Need Him? America's Search for a Postconflict Stability Force*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4).
- Pfiffner, James P. "US blunders in Iraq: De-Baathification and disbanding the army."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25, No. 1 (2010).
- Record, Jeffrey. *Bounding the Global War on Terrorism* (Carlisle Barracks: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3).
- Snyder, Jack.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CA: The Rand Corporation, 1977).
- \_\_\_\_\_.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caveat emptor." In Carl G. Jacobson (ed.). *Strategic Power: USA/USSR*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0).
- Sondhaus, Lawrence. *Strategic Culture and Ways of War* (Oxfordshire: Routledge, 2006).
- Toje, Asle. *America, the EU and Strategic Culture: Renegotiating the Transatlantic Bargain* (Oxfordshire: Routledge, 2008).
- Ullman, Harlan K. et al. *Shock and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6).
- Walt, Stephen M. *The Hell of Good Intentions: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Ward, Lee. "Locke on the moral ba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3 (2006).

Warden, John A. "Air Theo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Karl P. Magyar (ed.). *Challenge and Response: Anticipating US Military Security Concerns* (Maxwell AFB: Air University Press, 1994).

Weigley, Russell F.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Winthrop, John.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Boston: Barnes&Noble, 1838)

Wohlforth, William C.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1999).

Wylie, J. C. *Military Strategy: A General Theory of Power Control*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67).

<News>

*Foreign Policy*.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ABSTRACT]

## **Understanding Operation Iraqi Freedom from the Perspective of American Strategic Culture**

*Hee-Yong Yang* | Associate Professor, Korea Military Academy

The America's failure in Iraq cannot be isolated from non-material and ideational factors or discourses on America's international role and ideas on how to use its military force in the service of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This research attempts to trace a causal link between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strategic choices made by policymakers during Operation Iraqi Freedom.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ulture, while America's ambition for nation-building in Iraq may find its root in America's cultural tradition, assertive and unilateral approach the U.S. took can be ascribed to the influence of neo-conservatives, who in the aftermath of 9/11 rose to dominate policy-academia-military networks. Unchallenged beliefs in its military power and legitimacy in exercising the power had also adverse impact on military strategies. Blind faith American decision makers and military strategists alike had on military technology compelled them in effect to separate politics and military dimension, which rendered American strategic culture reverted to the anti-Clausewitzian tradition.

---

**Keyword:** Strategic Culture, Operation Iraqi Freedom, Neoconservatism, Liberal hegemony, Nation-building

투고일: 2019년 10월 18일, 심사일: 2019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19년 11월 25일